

참여하는 협회, 실천하는 협회

Participating and Practical Institute

이세훈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Se-Ho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세훈입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미려한 본인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건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불황의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해선 투쟁도 불사해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나라밖에서는 글로벌경제체제의 확산으로 국가간 시장쟁탈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결국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점차 더 큰 압박과 시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타파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말해 줍니다.

나보다 남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나, 다수의 썸소리를 일과성 불만쯤으로 간과해 버리는 조직은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고의 전문가단체를 자부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제도보호의 틀 속에 안주하며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 이는 회원들의 외면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하는 새집행부는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한 회원의 구심체로서 '참여하는 협회', '자존심이 있는 협회', '실천하는 협회'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협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통해, 법체제의 모순과 혼란을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사업영역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실현시켜 건축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정보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건축사업무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계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고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그 어느 때보다 회원여러분께서 본인과 새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8천5백여 전회원의 화합과 단결에 의해 지켜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실천적 노력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앞에堂堂히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